



한국 다이빙 역대 최고 성적

'간판' 우하람, 3m 스프링보드 4위... 다이빙 사상 첫 메달 꿈 '10m 플랫폼' 도전



간판 우하람(23·국민체육진흥공단)이 아쉽게 한국 다이빙 사상 첫 메달 획득 기회를 다음으로 미뤘다. 그러나 역대 최고 성적으로 아쉬움을 달랬다.

우하람은 3일 일본 도쿄 아쿠아티스센터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다이빙 남자 3m 스프링보드 결승에서 1~6차 시기 합계 481.85점을 기록해 12명 가운데 4위를 차지했다. 준결승에서 408.15점으로 12위에 올라 턱걸이로 결승에 올랐음에도 우하람은 "컨디션은 좋으나 1차 시기에 몸이 너무 가벼워 회전이 더 많이 됐다. 결승에서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고, 메달권에 근접한 성적을 냈다.

4위는 한국 다이빙의 올림픽 무대 역대 최고 성적이다. 한국 다이빙은 1960년 로마 대회부터 올림픽에 출전했으나 메달리스트를 배출하지 못했다. 이번 대회 이전까지 올림픽 다이빙에서 결승

에 진출한 것도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대회의 우하람이 유일했다. 우하람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남자 10m 플랫폼에서 12명이 나서는 결승에 진출해 최종 11위에 올랐다.

2019년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3m 스프링보드 4위에 오르며 올림픽 메달 기대감을 키웠던 우하람은 올림픽 메달 꿈을 이루지 못했으나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한국 다이빙 역대 올림픽 최고 성적 기록을 갈아치웠다.

우하람은 이번 대회 예선, 준결승보다 조금 더 난도를 높여 결승에 나섰다. 예선과 준결승에서 5차 시기에 난도 3.0의 연기를 펼쳤지만, 결승에서는 난도 3.6의 연기로 바꿨다.

그는 예선 준결승에서 다소 아쉬운 점수를 받았던 1차 시기를 결승에서는 무난하게 통과했다.

우하람은 앞으로 서서 몸을 반 구부린 채로 두 바퀴 반을 회전한 뒤 2바퀴 트위스트를 해야 하는 1차 시기에서 76.50점을 획득해 공동 5위로 출발했다.

2차 시기에서 뒤로 서서 앞으로 완전히 구부린 채로 세 바퀴 반을 도는 동작을 한 우하람

은 기술을 펼친 뒤 깔끔하게 입수에 성공, 81.60점을 따냈다. 2차 시기까지 순위는 5위로 변함이 없었다.

우하람은 3차 시기에서 앞으로 서서 앞으로 완전히 구부린 채로 4바퀴 반을 도는 난도 3.8의 동작에서 무려 91.20점을 쟁겨 4위로 올라섰다. 3차 시기만 따지면 우하람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앞으로 서서 뒤로 완전히 구부린 채로 3바퀴 반을 돈 4차 시기에서도 실수는 없었다. 난도 3.5짜리 연가에서 우하람은 82.25점을 추가했다. 4차 시기까지도 4위였지만, 3위 짝 로어(영국)와 점수차를 3.05점 차에서 1.8점 차로 좁혔다.

5차 시기에 뒤로 서서 뒤로 회전하며 양 팔로 양 다리를 꺾은 채 세 바퀴 반을 도는 난도 3.6짜리 연가를 시도한 우하람은 입수 시 다소 흔들리면서 68.40점에 머물렀다.

5차 시기까지 우하람의 순위는 4위로 변함이 없었다. 하지만 3위 로어가 난도 3.8의 연기를 깔끔하게 소화하면서 무려 96.90점을 받아 메달권에서 멀어졌다. 5차 시기 후 중국의 셰스

이와 왕종위안이 1, 2위를 지킨 가운데 4위 우하람과 3위 로어의 점수 차는 30.3점으로 벌어졌다.

우하람은 3.9로 가장 난도가 높은 연기를 시도한 6차 시기에는 81.90점을 얻었다. 앞으로 서서 앞으로 두 바퀴 반을 돌고 옆으로 세 바퀴 트위스트를 해야 하는 동작을 큰 실수없이 해냈다.

하지만 5차 시기까지 3위였던 로어도 6차 시기에 난도 3.9의 동작을 깔끔하게 성공, 87.75점을 따내면서 우하람을 메달에서 멀어졌다.

5차 시기까지 1, 2위를 놓치지 않았던 셰스 이, 왕종위안이 6차 시기를 실수없이 마치면서 우하람은 최종 4위가 확정됐다.

금 은 메달은 다이빙 강국 중국이 모두 가져갔다. 셰스이가 588.75점으로 1위에 올랐고, 왕종위안이 534.90점으로 뒤를 이었다. 이번 대회 싱크로이즈트(싱크로) 3m스프링보드에서 왕종위안과 금메달을 합작한 셰스이는 2관왕에 등극했다.

로어가 518.00점으로 동메달을 품에 안았다. 아쉽게 메달을 놓친 우하람은 10m 플랫폼에서 다시 한국 다이빙 사상 첫 메달에 도전한다. 이번 대회 남자 10m 플랫폼 예선은 6일에, 준결승과 결승은 7일에 열린다. /뉴시스

'4강 실패' 김학범호 올림픽 남자축구 5위

김 감독-축구협회 계약 종료

2020 도쿄올림픽 4강 진출에 실패한 김학범호의 남자축구 최종 성적은 5위로 확정됐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한국 올림픽축구대표팀은 남자축구 조별리그 3경기에서 2승1패(승점 6), 조 1위로 8강에 오른 뒤 멕시코에 3-6으로 저 준결승에 오르지 못했다.

대회 4강이 스페인-일본 브라질-멕시코의 대결로 좁혀진 가운데 한국은 조별리그와 8강에서 탈락한 12개 팀 중 가장 높은 5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올림픽 4경기에서 2승2패(승점 6·13 득점 7실점·골득실 +6)로 8강에서 탈락한 팀 중 유일하게 2승을 쌓았다.

6위는 뉴질랜드(1승2무1패·골득실 0), 7위는 코트디부아르(1승2무1패·골득실 ?2), 8위는 이집트(승점 4)다.

그밖에 조별리그에서 떨어진 독일, 아르헨티나, 루마니아(이상 승점 4), 호주, 프랑스, 온두라스(이상 승점 3), 시리아(리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이상 승점 0))이 9~16위까지 뒤를 이었다.

김학범호의 5위는 2016 리우데자네이루 대회(8강 탈락)와 함께 올림픽 남자축구 역대 두 번째로 좋은 성적이다. 한국 축구의 올림픽 역대 최고 성적은 2012 런던 대회 동메달(3위)이다.

2004 아테네 대회(8강 탈락)는 6위였고, 2000 시드니 대회 9위, 2008 베이징 대회 10위, 1996 애틀랜타 대회 11위, 1992 바르셀로나 대회 11위, 1988 서울 대회 11위, 1964 도쿄 대회 14위를 거둔 바 있다.

도쿄올림픽 8강 탈락으로 김학범 감독과 대한축구협회의 계약 기간도 멕시코에 패한 7월 31일로 종료됐다. 김 감독의 계약 기간은 올림픽 최종 경기가 치러진 달까지였다.

계약은 끝나지만, 해야 할 일은 남아 있다. 협회에 따르면 김 감독은 이날 말까지 도쿄올림픽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뉴시스



女탁구 단체전 8강서 독일에 석패

한국 여자 탁구대표팀이 유럽의 강호 독일에 역전패를 당해 4강 문턱에서 좌절했다.

전지희(29·포스코에너지), 최효주(23·삼성생명), 신유빈(17·대한항공)으로 구성된 한국 대표팀은 3일 도쿄체육관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탁구 여자 단체전 독일과의 8강전에서 2-3으로 패했다.

한국 남녀 탁구대표팀은 도쿄올림픽에서 아직 메달이 없다.

전날 남자 탁구대표팀이 단체전에서 4강에 올라 메달 가능성을 높였지만, 여자 단체전은 아쉽게 준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대표팀 '만일니' 전지희는 제3경기를 승리해 독일의 기세를 꺾었지만, 막내 신유빈과 최효주가 독일의 견고한 벽을 넘지 못했다. /뉴시스

레슬링 류한수 16강서 패배

한국 레슬링의 마지막 자존심 류한수(33·삼성생명)가 16강에서 탈락하며 그랜드 슬램 도전에 실패했다.

류한수는 3일 일본 지바의 마쿠하리 메세 A홀에서 벌어진 도쿄올림픽 레슬링 그레코로만형 남자 67kg급 16강전에서 아프리카 강자 무함마드 엘 사에드(이집트)에게 6대 7로 패했다.

16강 탈락으로 금메달이 무산되면서 류한수의 그랜드 슬램 도전도 좌절했다.

하지만 메달 가능성이 사라진 건 아니다. 상대 선수인 엘 사에드가 결승에 진출하면 패자 부활전 진출권을 얻어 동메달 획득에 도전할 수 있다.

엘 사에드가 결승 진출에 실패하면 류한수는 올림픽 탈락이 확정되며 한국 레슬링은 노메달로 대회를 마치게 된다. /뉴시스

도쿄올림픽 전복선수들 '승전보'

펜싱 권영준·송재호, 배드민턴 공희용銅 차지

2020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전복 선수들이 값진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3일 전복체육회에 따르면 도쿄올림픽에 출전, 메달을 획득한 전복선수는 펜싱의 권영준·송재호, 배드민턴의 공희용이다.

권영준(익산시청)과 전복체고를 나온 송재호(화성시청)는 남자 에페 단체전 동메달 결정전에서 중국을 45대 42로 누르고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특히 이번 펜싱 동메달 획득에 전복스포츠과학센터도 한몫했다.

스포츠과학센터는 지난해부터 권영준 선수 거 수속 돼 있는 익산시청 펜싱팀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밀착지원 했다.

체력강화를 위한 서킷 웨이트 훈련과 펜싱 종목에 적합한 기능성 훈련을 중점 시행했다. 기능성 훈련은 선수가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운동선경을 축진시키는 데 이점이 있다.

개인 첫 올림픽 무대에서 메달을 획득한 송재호는 고등학교 시절 전북 대표로 전국 체전에 출전하기도 했다.

여자복식 배드민턴 경기에 김소영(인천국제공항)과 짝을 이뤘던 공희용(전북은행)도 동메달을 획득했다.

세계랭킹 5위인 공희용-김소영은 동메달 결정전에서 세계랭킹 4위인 이소화-신승찬(인천국제공항)에 2대 0으로 승리했다.

이 경기는 전북 선수들끼리 맞붙은 경기라 더욱 관심이 높았다.

공희용은 현재 전북은행 소속이고, 신승찬은 고창 출신이자 전주 성삼여고를 나왔다.

한편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은 여자배구(이소영·오지영)와 남자 야구(차우찬), 육상 마라톤(심종섭) 등에서도 전북 선수들이 승전보를 전해줄 기대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김소영-공희용 '금의환향' 도쿄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복식에서 동메달을 딴 김소영, 공희용이 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한국 배드민턴, 중국 선수 욕설 의혹에 공식 항의

협회, "만일 욕설이었다면 혼잣말로 상대 비난...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

대한배드민턴협회는 3일 세계배드민턴연맹(BWF)에 공식 항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의 장면이 연출된 날은 지난달 27일이다. 천칭전은 자이판과 함께 배드민턴 여자복식 조별리그 D조 3차전에서 한국의 김소영(29·인천국제공항)-공희용(26·전북은행) 조를 상

해하게 해 미안했다.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 스스로 힘을 불어넣었을 뿐이다. 발언이 안 좋아서 오해하게 만들었다. 매우 당황스럽다"면서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전했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경기 중 상대 선수를 향한 욕설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만큼 BWF

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결과에 영향을 줄 수는 없었지만 제발 방식을 위해서라도 짚고 넘어갈 생각이다.

대한배드민턴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이런 장면은 본 적이 없다. 만일 욕설이었다면 혼잣말로 크게 상대를 비난하는 것인데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천칭전-자이판 조는 여자복식 은메달을, 김소영-공희용 조는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시상식 후에는 금메달 조와 함께 기념 사진을 찍었다. /뉴시스

김명병 의심되면 '1339'로

2020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중국 여자 배드민턴 천칭전이 한국과의 경기 중 수 차례 욕설을 내뱉은 것을 두고 대한배드민턴협회가 항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3일 세계배드민턴연맹(BWF)에 공식 항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의 장면이 연출된 날은 지난달 27일이다. 천칭전은 자이판과 함께 배드민턴 여자복식 조별리그 D조 3차전에서 한국의 김소영(29·인천국제공항)-공희용(26·전북은행) 조를 상